

5·18 바로 세우고 호남인사 중용...해묵은 지역현안 해결

文정부 100일 성과와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국민의 '촛불혁명'으로 분출된 사회전반의 개혁 요구 속에 당선된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되는 개혁의 큰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는 평가다. 또한, 파격과 소통, 감성을 키워드로 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은 더욱 주목받았다.

불통과 권위로 상징된 박근혜 대통령과 확연히 달라진 통치스타일을 선보이며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민심을 어루만졌고, 이는 70%를 웃도는 지지율의 고공행진으로 이어졌다.

◇광주·전남 '공정 평가' = 광주·전남에서는 그동안 폄훼와 왜곡이 끊이지 않았던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추진과 5·18 진상규명 등 역사 바로 세우기가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역대 보수 정권에서 홀대받았던 '호남 인사' 중용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밸리,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광주(군)공항 이전과 호남선 KTX 무안

지지를 70%대 고공행진...호남 80%대 가장 높은 지지

김·군·국정원 등 전방위 적폐청산...파격·소통 리더십

대북안보정책·대야 협치 '난제'...소득주도 경제 주목

공향 경유를 포함한 KTX2단계 사업 추진 등 지역의 해묵은 현안사업들이 국정 과제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도 지역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70%대의 고공행진 속에는 호남이 가장 높은 80%대의 지지를 보내고 있어서다. 지난 5·9 대선에서 최고 득표율(전북 64.8%·광주 61.1%·전남 59.9%)로 응답했던 호남이 취임 100일을 맞은 문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문 대통령에 대선 기간 제시했던 광주·전남 공약과 가까운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 현안사업들이 현 정부 내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광주·전남 현안사업 추진 의지는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개혁 성과와 과제 = 세월호 사건과 4대강 문제, 원전, 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고, 돈봉투 사건으로 치부를 드러낸 검찰과 방산비리가 또다시 터진 군(軍) 등 권력기관들을 잇따라 개혁의 수순대에 올렸다.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활동으로 '맛골공작' 등 각종 정치개입과 불법 사찰 의혹이 드러난 국가정보원은 이미 개혁작업이 진행형이다. 하지만, 단순히 밀그림을 그리는 차원을 넘어 검찰과 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북핵 위협에 따른 대북정책과 야당과의 협치 부재, 사드 배치 문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인 탈원전 정책, 검찰과 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경제적으로는 국정과제의 최우선으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통한 경기 부양,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개혁해낼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최정열기자 cki@kwangju.co.kr



8·15 만세삼창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모든 것 걸고 전쟁 막을 것”

광복절 경축사...“한일관계 역사문제 덮고 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인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식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라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우리의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과 미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군사행동의 최종 결정권이 한국에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전쟁 절대 불가”를 확실하게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일 관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일본 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가며,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식 참석에 앞서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묘역과 삼의사(三義士) 묘역을 참배했다. 현직 대통령이 김구 묘역과 삼의사 묘역을 참배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선열들이 이룬 광복,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7. 8. 15 문재인’이라고 썼다.

김구 묘역 참배에 이어 문 대통령은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의 묘와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있는 삼의사 묘역으로 이동해 헌화하고 참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민음사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국 산란계 농장 달걀 출하 중지

경기도 농장 달걀서 살충제
광주·전남 101곳 전수조사

15일 0시를 기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산란계 농장의 달걀 출하가 중지됐다. 경기도 산란계 농장 2곳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피프로닐·비베르틴)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양계농가는 지난 겨울 전국을 휩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관련기사 6면〉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산란계를 키우는 농장은 모두 99곳이다. 3000마리 이상 사육 농가가 89곳, 3000마리 이하 농가 10곳이다. 이 중 친환경 인증 농가는 78곳, 미인증 농가는 21곳이

다. 시군별로는 나주가 26곳으로 가장 많고, 화순·무안이 각각 12곳, 함평 10곳, 담양·영암 각각 6곳, 보성 5곳 등이다.

이들 농가에서 사육되는 닭은 약 485만마리다. 이는 전국에서 사육되는 닭의 5~8%수준으로, 생산된 달걀은 대부분 광주·전남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산란계 사육 농가 99개 농가에서 시료채취를 해 피프로닐 등 27종의 농약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17일께 나올 예정이다. 광주시도 광산구 삼도동의 산란계 농가 2곳에서 지난 14일 시료를 채취해 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들 산란계 농장에서는 7만마리의 닭을 사육하고 있다.

전남도는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기

으면 검사증명서를 발급해 즉시 출하를 허용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달걀을 즉시 수거·폐기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다행히 광주·전남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친환경·무항생제 축산을 추진해 이번엔 문제가 된 피프로닐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프로닐은 벼류·진드기 등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나, 닭에는 사용 금지된 약제다. 국제보건기구(WHO)는 다량 섭취할 경우 간장·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양길 대한양계협회 전남도지회장은 “문제가 된 살충제는 ‘닭이’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전남 양계농가에서는 4~5년전 ‘이’가 박멸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안출발 일본여행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 가족·연인과 함께 기타큐슈로 떠나세요♪

◆ 출발일 : 8월 5일(토) ~ 10월 9일(월) 까지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금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레이어

8/11(금) 출발 **※선착순 한정특가**
북큐슈 펜션특가 4일 499,000원부터

8/14(월) 출발, 8/17(목) 출발
북큐슈 실속특가 4일 559,000원부터

항공 4일(매주 월요일, 목요일)
북큐슈 4일 699,000원부터

나가사키 4일 799,000원부터

야마구치 4일 799,000원부터

큐슈·오사카 4일(단, 한변) 799,000원부터

◆ 공통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일정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 공통 불포함사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부터

기타큐슈 추석연휴

2017년 제일 긴 추석연휴가 온다~!!

9/30(토)~10/9(월) 매일 전세기 운항

효사랑 가족 3대 한정특가!!!

10/1(일), 10/4(수) 단, 2회!

아마가세 고급 온천펜션 숙박 (호텔 2박, 펜션 1박)

선착순 한정 799,000원(ALL 포함)

※최소 4인 이상 예약 가능

9/30(토)~10/9(월) 출발 (3박4일)

[실속] 북큐슈 898,000원부터

[품격] 북큐슈 1,098,000원부터

[품격] 나가사키 1,098,000원부터

[품격] 야마구치 1,098,000원부터

다낭, 후에, 호이안 3박5일

〈무안출발〉
티웨이항공

9/19(화), 9/22(금) 출발

준특급 499,000원부터 특급 599,000원부터

8/23(수), 26(토), 29(화)

9/1(금), 4(월), 7(목), 10(일), 13(수), 16(토)

10/14(토), 17(화), 20(금), 23(일), 26(목), 29(일)

준특급 699,000원부터 특급 799,000원부터

◆ 공통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 식사, 차량+한국인 가이드, 입장료 관광지 입장료, 차량 내 생수

◆ 공통 불포함사항 : 현지 가이드 및 기타 봉사료(\$40/인), 여권, 공항 수속, 개인 경비, 선착 관광, 메니얼, 상급차(8박준특급 \$120, 특급 \$230)

<항공왕복>

제주도 웰빙 2박3일

349,000원 부터

7/21(금)~8/20(일)

*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오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지별 가입혜택대상: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가 요금은 항공 및 항공료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서 작성 ◆ 예약시 계약서(유상)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착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